

## 만성신부전환자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가성흑색소증 1예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sup>1</sup>내과학교실, <sup>2</sup>병리학교실, <sup>3</sup>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익산병원 병리학교실

\*손승현<sup>1</sup>, 김 원<sup>1</sup>, 조원석<sup>1</sup>, 김남호<sup>1</sup>, 이재원<sup>1</sup>, 김현기<sup>1</sup>, 한원철<sup>2</sup>, 윤기중<sup>3</sup>, 김용성<sup>1</sup>

**서론:**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성흑색소증의 대부분은 대장에서 발견되고, 십이지장이나 회장을 포함한 소장에서 가성흑색소증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저자는 2년간 경구 황산제2철(ferrous sulfate) 제제를 복용하던 67세의 여성 만성 신부전환자에서 십이지장에 발견된 가성흑색소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7세 여자 환자가 어지럼증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과거력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만성신부전으로 외래 추적 중이었으며 2년간 하루 2회 256 mg의 경구 황산제2철 제제를 복용 중이었다.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색소 8.0 g/dL, 백혈구 5,900/mm<sup>3</sup>, 혈소판 153,000/mm<sup>3</sup>였다. 빈혈에 대한 원인 평가를 위해 입원 제 2일에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상 십이지장 제 2부 점막에서 작은 반점 모양의 어두운 갈색병변이 산재하여 있는 것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 십이지장 점막의 용모 점막의 고유층에갈색의 색소침착이 관찰되었고Fontana-Masson 염색과 Prussian blue 염색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혈철소가 침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일으킬 만한 기질적 질환이 없어서 환자는 입원 3일에 퇴원하였으며 현재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 **고찰:** 십이지장의 가성흑색소증은 드문 질환으로 십이지장 용모 선단의 점막고유층에 색소를 포함하고 있는 대식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중년 여성에 호발하며, 만성신부전 등의 만성질환에서 경구 철분제, 혈압약, 이뇨제 등의 약물 투여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환자의 경우 만성 신부전환자에서 경구 철분제제의 사용으로 인해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Histopathologically, hemosiderin-laden macrophages are seen in the lamina propria within the normal structure of duodenal villi (H&E, ×400).



## 상부 위장관 침범을 동반한 궤양성 대장염 1예

<sup>1</sup>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sup>2</sup>병리학교실

\*강재진<sup>1</sup>, 윤병철<sup>1</sup>, 위영찬<sup>2</sup>, 백승삼<sup>2</sup>

**서론:** 궤양성 대장염은 회맹부 상부로는 잘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부 위장관 및 눈, 피부, 관절과 같은 병변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위, 십이지장 침범을 동반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18세 남자환자가 10일 전 시작된 복통과 혈변, 2일 전 시작된 토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가족력, 흡연력, 음주력 및 약물복용력에 특이사항 없었다. 내원당시 혈압 140/70 mmHg, 맥박수 11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7℃였고 WBC 17,500/mm<sup>3</sup>, Hb 12.9 g/dL, Hct 33 mm/hr, PLT 271,000/mm<sup>3</sup>, CRP 6 mg/dL, 총단백/알부민 6.6/3.6g/dL, BUN/Cr 12.4/0.9 mg/dL였다. 대장내시경에서 맹장부터 직장까지 심한 발적과 부종, 미란이 산재되어 있었고 위내시경에서 위 전반과 십이지장 구부에 점막부종 및 발적, 충혈, 출혈이 관찰되었다. 대장과 십이지장의 내시경 육안소견은 거의 동일하였다. 대장내시경 조직검사서 급성 염증, 음와 농양, 음와 변형, 림프구 및 형질세포의 침윤, 기저부에 형질세포 및 림프구 응집이 관찰되었고 위내시경 조직검사서 급성 염증, 림프구 및 형질세포의 미만성 침윤과 음모의 둔화가 관찰되었다. 급식 및 고용량 PPI를 시작하였으나 입원 5일째 위내시경에서 병변은 더욱 악화되어 궤양성 대장염의 급성 염증기로 상부위장관 침범을 동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methylprednisolone 60 mg 을 정주하였고 이후 증상 호전되었다. 입원 12일째 추적검사한 내시경에서 호전되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고찰:** 본 증례는 토혈과 혈변을 주소로 내원하여 내시경 및 조직검사 소견이 상부 위장관과 대장에서 유사하게 관찰되며, 소화성 궤양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투여 후 상부위장관 병변도 동시에 호전되었다. 이에 궤양성 대장염의 상부위장관 침범이 확인된 국내 최초의 사례로 보고하는 바이다.

